

어린이 책꽂이

▲아인슈타인 과학동화 시리즈(전3권) =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특역은 시리즈, 시간과 공간, 블랙홀, 양자를 주제로 전 3권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존인물인 아인슈타인이 대화 속 주인공 공으로 등장한다. <어린이 중상·1권 9천원, 2·3권 9천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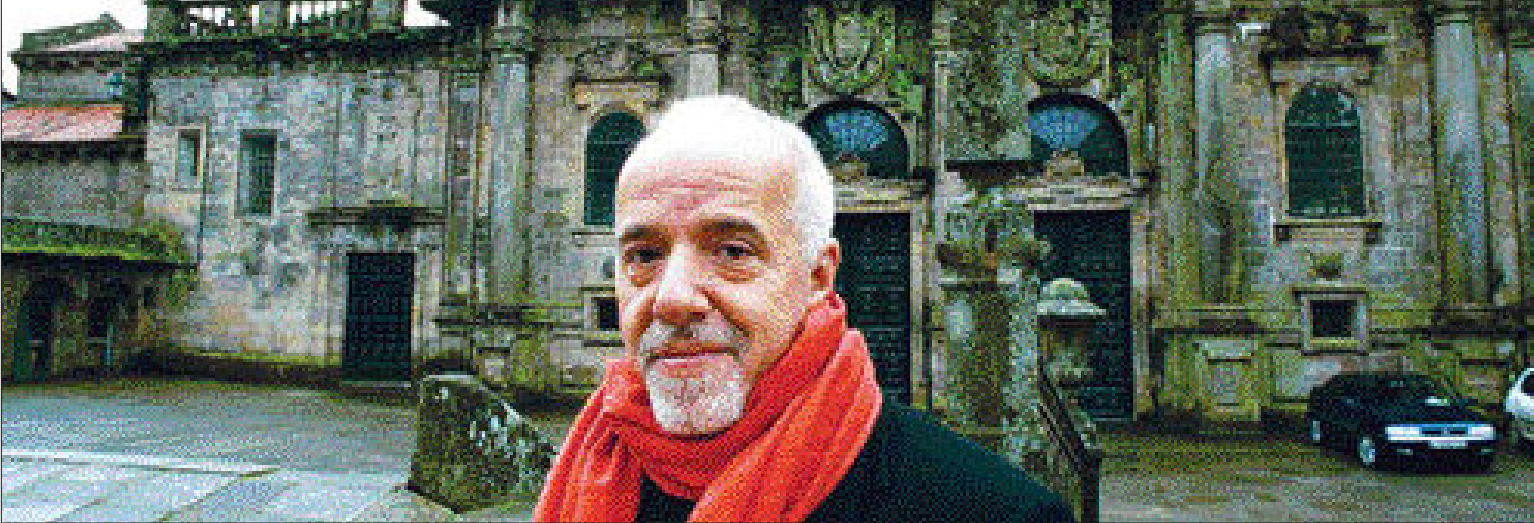
▲대단한 세계역사 = 초등학교에 꼭 필요한 기본지식을 주제별로 엮어 어린이들이 부담없이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세계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꾸민 백과사전. 고대,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세계 역사를 그림과 지도로 알기 쉽게 설명했으며 시대별 한국역사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덧붙였다. <주니어 화니북스·1만1천원>

▲산이 품은 사람 심메마니 = '김예석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산삼 캐는 일에 평생 바치는 심메마니, 또는 심메마니의 삶을 동화로 엮었다. 흠수 기간 동안 산에서 먹고 자는 모습, 산을 찾는 동안 땅을 파고 흙을 지어 생활하는 모습 등 심메마니의 독특한 생활상이 잘 나타나 있다. <파랑새 어린이·8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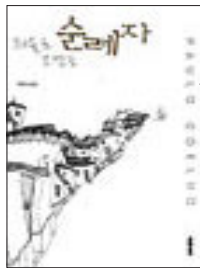
▲할아버지의 붉은 뺨 = 옛날 이야기를 해줄 때면 뺨이 붉어지는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을 수록 뺨이 붉어지는 손자의 아들답고 감동적인 이야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삶에 대한 희망과 여유를 잃지 말라고 당부하는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시적인 일러스트와 곁들여져 따뜻함을 선사한다. <웅진주니어·9천원>

▲샘물 세모금 =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십년씩 젊어지는 샘물들 소재로 판타지 세계, 증조할아버지가 풀어놓은 옛날 도깨비 이야기와 실제로 주인공 준우가 도깨비를 만나 겪는 소동, 달의 색깔이 달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이야기들이 환상적으로 그려져 있다. <창비이동문고·8천500원>

“비범한 삶은 평범한 사람의 길 위에 있다”



순례자 파울로 코엘료 지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무언가를 사랑하고 믿게 되면, 자신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더 강하다고 느끼게 되며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산업을 깨뜨리지 못할 거라는 확신에 차 평온함을 맛보게 된다.”(p.157) 안나자 페르루스가 순례자에게 하나의 생각이나 수업을 향한 아가레, 즉 '열정'에 대해 설명하자, 순례자는 자신이 순례의 길에 몰입해 있는 것을 깨닫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연금술사'로 잘 알려진 브라질 작가 파울로 코엘료(60)의 데뷔작 '순례자'가 국내에 번역 출간됐다. '순례자'는 38세의 잘나가는 음반회사 중역이던 저자가 프랑스 남부 생장드피에르에서 스페인 서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이르는 700km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경험

한 뒤 쓴 일종의 자전적 소설이다. 저자는 순례를 마치고 1년 후인 1987년 이 책을 쓰면서 작가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700km의 '산티아고 순례길' 작가가 직접 체험 뒤 글로 써 소설발간후 年 450만명 답사

'순례자'는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저자와 안나자 페르루스가 나눈 영적 대화와 명상으로 이뤄졌다. 다소 기독교적인 냄새가 짙긴 하지만 누구나 수긍할만한 '인생의 집안'들이 나온다. 잃어버린 감(感·인생의 목표)라는 의미를 찾아 떠나는 주인공은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주인공은 페르루스가 인도하는 '속도훈련', '듣기훈련' 등 신체 훈련을 병행하면서 거듭나고 느낀다. 페르루스는 "우리가 매일 같이 습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들 속에서, 너무 익숙한 것이라 무관심해진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던 신비를 발견하는 훈련"이라고 얘기한다. 책은 '영혼의 연금술사' 코엘료의 어떠한 영적 순례를 통해 전세계 독자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아름의 길'로도 불리는 '산티아고 순례길'은 1986년 연간 400명 가량의 순례자가 다녀갔지만 코엘료로 인해 현재는 연간 450만명 정도가 다녀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엘료는 올 3월, 자신의 인생을 바꾼 계기가 됐던 '산티아고 순례길'을 20년 만에 가족들과 함께 다시 찾았다. 시베리아 횡단으로까지 이어진 이번 여정은 그의 개인 블로그(www.paulocoelho.com)에 실시간으로 기록됐다. <문학동네·9천500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내 인생 한편의 책

한비아의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나에게는 선망이 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 해보지 못한 일, 내 능력 밖 체험 등등에 대한.

대학생 때 빈민촌 주말 의료봉사를 한 적이 있다. 평생을 담고 가리라는 그때의 다짐을 깨뜨리지 않고 지냈다. 사회인이 된 지금 범부로서 일상을 지내지만 마음 한 구석엔 부채의식이 남아 있다.

한비아의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는 잠과 같이 나의 선망과 부채의식을 깨웠다. 남들과 다른 모험을 즐기는 오지 여행가로만 알고 있었는데 긴급구조팀장으로서 빈곤과 분쟁지역을 5년간 날아다녔다. 자신과 현실을 넘어 지구촌의 문제를 안고 가는 그녀는 일상에 파묻혀 나 자신 또는 주변만 볼 줄 알고 있던 나를 깨우기에 남음이 있었다.

그녀는 젊음이 가득 차다. 재미난 세계 일주 대신 힘든 긴급구조에 나서려는 물음에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피를 끓게 만들기 때문'이었다.

도전정신이 높았다. 제목에서 보듯 지도 밖으로의 행군은 서유럽 여행 2주, 동남아 4박 5일 등 패키지에 익숙한 나로서는 상상이 쉽지 않다. 오지 여행가로 걸어서 지구 세 바퀴 반 바퀴의 달로 살다, 불혹에 다시 '긴급구조' 나선 모습이 경이롭다.

사실 대부분 가난한 시절 기억을 지우고 싶어 한다. 일찍이 아

'잠자는 나'를 깨운 헌신의 구호



버지를 여의고 어려운 성장과정을 겪었던 그이지만 오지여행체험을 통해 따뜻한 이웃집 언니가 되었다.

전후 반기만 하였던 우리에게 나눔의 실천을 보여주었다. 또 근대와 과잉에서 겪었던, 후에 일부 국민들이 외국인 근로자에 가했던 냉대를 보상하고 있는 듯 하였다.

책에서 그는 마음 씀씀이도 따뜻한 다. 잠비아에서 예약된 하루 60불짜리 사무실용 호텔을 말라위의 한 가족의 한 달 식량 값(20불)을 떠올리면서, 산 호텔도 옮긴 대목, 한 달에 단돈 6만원으로 말 썰을 입양 후원하는 모습은 빌 게이츠의 자선이나 국내 재벌의 때밀러 하는 식의 기부보다 더 담당하다.

이같은 그의 헌신은 가족 친지는 돌지 않지만 생면부지, 특히 우리보다 못하는 타국인에게는 거리를 두는 혈연주의에 젖은 우리의 자화상을 여지없이 무너뜨린다.

70~80년 빈민운동 보고서에 나타난 빈곤의 사회과학적 인식이나 이념은 덜하지만 부족하지도 않다. '세계의 화약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편에서 그의 모습은 깊고 균형 잡힌 긴급구조팀장의 세계관을 또렷히 드러낸다.

책은 딱딱하지 않아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다. 우리 특유의 정도, 다부짐도 넘친다. 곳곳에 휴머니즘이 살아있다. 시혜자의 동정심이나 거드름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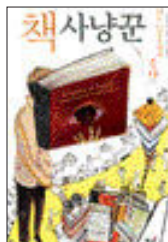
세계화, 양극화, 분단 등을 극복하는 실마리를 보이기 위해 지구인의 현안 중등문제 해결책을 저자의 불편부당한 세계인식과 솔직하게 기술한 구호활동 경험으로부터 얻는 것이 어떨까?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서 다소 엉뚱한 상상을 해본다. 경제·정치권(門) 닫히고 풍수해로 고생문(苦生門)이 열렸지만 적십자 구조마저 거절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경험 많고 노련한 한비아 긴급구조팀장을 다시 보내는 것은 어떨까하고.

박형철 <광주동구보건소장>

헌책방 가는 게 생활인 도서 수집광의 회고록

책 사냥꾼... 존 백스터 지음



무엇인가 수집한다는 것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취미 가운데 하나다. '책 사냥꾼-어느 책 중독자의 수다'는 11살때 시집을 구입한 것을 시작으로 책의 매력에 빠져 평생 책을 모은 도서 수집광의 회고록이다.

저자 존 백스터는 책 자체 보다는 책을 둘러싼 이야기, 특히 자신을 비롯한 '책 사냥꾼'들의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들려준다. 이들은 마약 거래를 방불케하는 거래를 통해 책을 사들이고, 지하사의 먼지 구멍을 뚫어서라도 원하는 책을 손에 넣을 열정 수집가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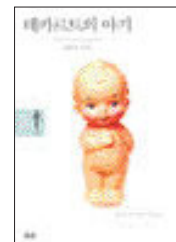
저자는 지난 1978년 영국 런던에서 책 거래의 전설적인 인물 마틴스톤을 만난 뒤 본격적인 책 사냥꾼으로 변신한다.

이후 매주 토요일 헌책방을 뛰는 것에서 희열을 느끼고, 원하는 책을 얻기 위해 몇을 놓은 사냥꾼처럼 정교적으로 헌책방을 살피는 일이 생활이 된다.

저자는 수집가의 입장에서 '도서관은 훌륭한 책들의 무덤이다'고 단언한다. 사서들이 책 커버에 마구 스탬프를 찍고, 뒤쪽에 대출자 목표카드를 붙이는 등 하나 같이 책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일만 한다는 푸념도 재미있다. <동녘·1만4천500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2~4세 아이들 실험 통해 인간 고유본성 찾기

데카르트의 아기 폴 블룸 지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들은 종종 대변을 아무렇지 않게 만지기도 한다. 생후 1~2년 동안의 아이들이 혐오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얘기가. 그렇다면 어느 순간부터 대변을 혐오하게 되는 것일까.

미국 예일대 폴 블룸(Paul Bloom) 심리학과 교수는 '데카르트의 아기'를 통해 아기들을 관찰하고 분석, 예술·현악·올리·죽음·신 등과 같은 개념의 인간 고유 본성을 찾는다. 인간은 누구나 아기였기 때문에 이같은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신체와 영혼의 차이를 인정하는 이원론자라고 정의한다. 이유는 아기를 조차 그 차이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2~4세 아기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 예술 작품에서 작가 의도의 중요성, 사후세계와 죽음에 대한 인식 등 인간 본성을 설명한다.

아기들은 신체적 소멸은 받아들이면서도 영혼은 지속될거라 생각한다. 사후 세계에 대한 개념이 어릴 적부터 인간과 함께 하는 것이다. 이같은 믿음은 직관을 따르는 인간의 데카르트적 관점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는 '데카르트의 아기'인 셈이다. <소스·2만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정우부동산랜드
(대) 1671-0823, (주) 607-2213
상업지역 130평 급매
니주 은곡농공단지 1030평
환순 동원 서성리 임야 6000평 매도
진월동 APT 입주 상가부지 380평
니주 남평 서산(드림강원원지)
주말농장 및 묘지용 410평
진월동 2층상가 280매도
남구 대촌 G/B 임야 20000평
영일 심호용당공장 360평 매도

한국공인중개사
(대) 1882-7100, (주) 010-4325-1323
장성지역
공장부지, 불류창고
전문중개
원하시는 지역에 원하는 평수대로 가능
※ 자연관개상 물건 올리지 못하진 않겠습니다.
공장매도
장성군 삼계면 4차선집
대지 약 3000평
건물 1-철골조 2층 437평
건물 2-철골조 248평
매매가 12억(절충가능)
* 장성군 향릉, 동화, 공장부지 매물 급구함.

등지공인중개사
(대) 576-4080, (주) 010-5668-3456
등지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매매 및 분양, 임대, 전세, 임대보증금
■ 일산역지 7개지구
■ 남구 이장동 1030평 급매
■ 남구 이장동 700평 매매
■ 남구 이장동 1층 주거지역 매매
■ 남구 이장동 1층 주거지역 매매
■ 남구 이장동 1층 주거지역 매매
■ 남구 이장동 1층 주거지역 매매

빛고을랜드공인중개사
(대) 010-9455-2200, (주) 674-1500
비전있는 남구, 지금이 부자의 최적기입니다
남구 이장동 임야 28000평 급매
남구 이장동 1층 주거지역 매매
남구 이장동 1층 주거지역 매매
남구 이장동 1층 주거지역 매매
남구 이장동 1층 주거지역 매매

아름다운부동산
(대) 062-956-8845, (주) 010-3162-4989
상가건물
투자 및 임대용지
모텔매매
병원부지
전원주택용지
모지
신축건물 임대

국민공인중개사
(대) 011-635-7939, (주) 010-3114-6103
건물
평
유주소 전문중개
병원부지 전문중개

동림2지구공인중개사
(대) 522-9422, (주) 011-643-3210
동림2지구 대
병·의원
학원,상가
최고상권
최적조건
3면도로코너
2층~5층
70평, 135평
속 입점확정
1층 광주은행

대지공인중개사
(대) 011-625-3965
구합니다
사회복지시설부지 2만평 이상(가격은 시세대로)
매매물 부동산 구입(신속처리)
판다!
주요부지 상업지역 임토 대지 290평*평당 350만원
교외부지 용적률 400평*330만원 (현황)
이전만 해갈 물건
신안동 제일오거리 22평형 대문, 000만원, 보증금 2,000만원, 월세 60만원
금리로 공시지가 15%
매매가 8억 대지 140평
중흥동 35m 대문부지 400평
코너 180평 매매가 평당 310만원
대지 280평 건물 300평 전면 22m 대지 매매가 10억 5천만원
신안동 상업지역 대지 102평
조방산전동 64평 현오실 대지 58평 월용 1억, 보 2500만원 150만(포함)
변흥동 4차선 대로로 접 900평
2층 건물 있음, 생산부지, 매매가 평당 130만원
삼각동 31사단 정문 앞 4차 선대로
대지 86평 매매가 평당 280만원
도원동 생산부지 포경도로로 접
807평 매평당 78만원
학동 대지 120평
여원동 150평 포경 도로로 접 330만원